

적응기간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

키워드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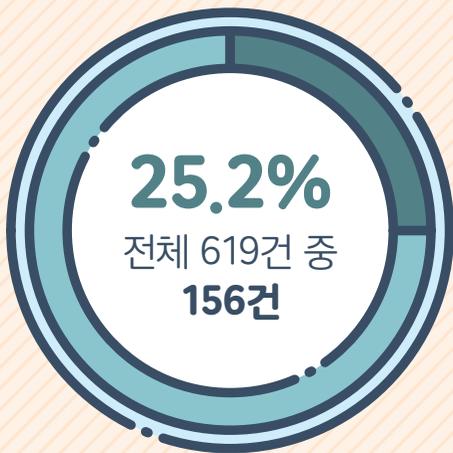


어린이집 안전공제회
Childcare center Safety & Insurance Association



신학기 적응기간(3~4월)에 집중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

“적응기간을 잘 지내면, 1년이 안전해요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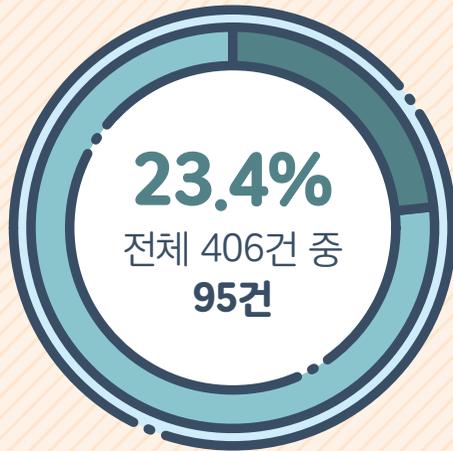
물림



꼬집음, 할퀴



베임, 긁힘



화상

*본 통계는 신학기 적응기간(3~4월)을 분석한 자료이며, 위의 유형 외 다양한 유형(넘어짐, 부딪힘 등)이 있음

1 물림

예방



놀잇감을 넉넉히 준비하고
갈등상황 발생 시
개입하여 중재



언어발달이 늦거나
표현법이 부족한 영유아의
불안감 및 분노 조절의
긍정적 모델링 지도

대처



피부에 상처가 없으면
생리식염수나 물로
깨끗이 씻어주기



피부에 상처가 있으면
물로 깨끗이 씻어주고
병원 내원



안돼! 내 꺼야!



2 꼬집음, 할퀴

예방



가정과 연계하여 손톱관리
철저히(교사 역시 손톱 및
액세서리 주의)



영유아의 정서적 상태를
파악하여 감정 수용 및
휴식공간 마련

대처



찰과상에는
습윤밴드 부착



얼굴은 식염수로 흐르듯
닦아주기(요오드용액,
과산화수소수 지양)



살점이 패인 깊은 상처는
흉터가 남지 않도록
병원 내원(피부과, 성형외과)



3 베임, 긁힘

예방



일과 시작 전 영유아들이
직접 가지고 놀이하는
모든 교재교구의
안전상태 확인



그림책 등 종이에 베일 수
있으니 주의 필요



영유아가 사용할 가위는
안전가위 또는
끝이 무딘 가위 사용

대처



출혈 부위를 지혈한 후
흐르는 물로 씻고
연고와 멸균거즈로
상처부위 감싸기



상처가 깊거나 출혈이
심하면 외상 부위를
씻지 말고 신속히 병원 내원

아앗!



4 화상

예방



뜨거운 음식은
식혀서 배식



보육교사의 뜨거운
음료 주의
(커피, 차 등)



글루건, 스테이플러 등의
위험한 도구는 하원시간
이후 사용

대처



물질 제거 및 임의 처치는
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
절대 금지(크림, 연고, 로션,
된장, 소주 등)



육안으로 중증도 파악이
어려우므로
신속하게 병원 내원



- 어린이집 적응기간 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의 협력은 영유아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
- 교사는 영유아의 올바른 감정표현이나 안전한 행동을 위한 모델링 필요
- 보육교직원 부주의로 인한 화상 사고 등 환경관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환경 조성

